

## 전력산업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에 총력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이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5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진규 회장, 전재성 기획이사, 김성철 기술이사, 김철석 경영지원본부장 등 협회 주요 인사와 이상호 사장, 심야섭 기술전무 등 한국남부발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체제 정착을 위한 협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력 및 기술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의 공동 실시 등이다. 전력산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로 안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협회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여러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전반에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50년 역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기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력산업의 무재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에 일익을 담당해나갈 것"고 포부를 밝혔다.